

무주군, 주민참여예산 확대

올해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함... 현재까지 538건 신청돼

무주군이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SOC사업과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읍면에서 건의하거나 직능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자체사업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시켜 편성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 마을 이장들을 통해 진행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1차로 마을구심체가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발굴하고, 2차로 15명 내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읍면협의회가 우선순위를 확정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1,2차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53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18년도 예산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농로나 마을 간의 연결도로, 소규모 하천까지 정말 마을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이 발굴이 된 만큼 마을발전과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읍면에서 건의한 경로당 개



무주군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해 SOC사업과 읍면이나 직능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자체사업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시켜 편성한다.

보수와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자체 사업과 주민소득증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능단체 등에서 건의한 자체사업들도 계속 발굴 중으로, 읍면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의, 읍면 접수창구 등을 통해 그리고 직능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각 분야별 직능단체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동필 예산담당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고 내실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실시

임시회 17일~25일 개최... 김종문 의원, 장수농업 위기 극복대책 제시

장수군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 28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위원회(위원장 김용문)에서는 군정주요정책과 각종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25개소의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은 장수군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종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산물 품질의 저하가 장수군 농업에 당면한 위기이며, 이에 대한 대



김종문 장수군의원

고 부자되는 장수농업을 다같이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댐 주변지역 물복지 확대사업 추진 박차

진안군은 17일 용담댐 주변지역 물복지 확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3,600~5,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까지 총 135세대(1억3,100만원) 소외계층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용담댐 주변지역 물복지 확대사업 협약'을 체결해 담주변 상수도 미급수 지역 내 소외계층 30세대에 가정급수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올해에는 용담댐관리단 지원 사업비 총 3,000만원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구마 맛도 모양도 최고

무병묘 지원... 신제품 다호미·풍원미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 호박고구마 재배농가에 서는 현재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진안 고구마는 고원지대의 특성상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동화물 질 전류가 잘돼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으며 식미감 또한 우수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재래종 호박고구마는 맛이 뛰어난지만 수년간 지속 재배로 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품질과 수확량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작년보다 품종 전환을 위해 신제품 '다호미'와 '풍원미' 보급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종 전환과 재배 지도로 진안고원 고구마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후에 잘 맞으며, 조기출하가 가능하다. 또, 저온과 가뭄에 강해 진안고원 기후에 적합해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안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지원을 통해 건전묘를 보급할 방침이며, 신제품 보급과 퇴화품종을 전환하는 등 고구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 농기계사업단에서는 고구마 수확작업을 돕기 위해 수확작업기 25대를 보유하고 농가에 임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종 전환과 재배 지도로 진안고원 고구마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홍삼축제 최종 현장점검 마쳐

진안군은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 19일 개막을 앞두고 축제장 준비상황 최종 점검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은 행사장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메인무대와 홍삼체험관은 물론 각 체험부스 설치 및 배치상황, 연계행사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체험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축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항로 군수는 "최우선으로 축제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 관리와 편의시설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해 축제를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준비를 마쳤다"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마이산 북부일원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에 오셔서 건강충전! 활력 충전! 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진안홍삼축제는 19일 오후 2시 홍삼가게떡볶이를 시작으로 홍삼명인 전통음식체험, 홍삼대방출, 홍삼가게떡볶이 등 오직 진안홍삼 축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 태권도진흥재단, 12월 초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2월 초까지 전국의 태권도 및 체육 관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태권도 분야 연구에 대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 학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발표 주제는 '태권도(원) 발전'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대상은 태권도 및 체육 관련 석·박사 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박사학위 취득자는 제외)이다.

재단은 12월 발표대회를 진행한 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 250만원)과 우수상 2편(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 180만원), 장려상 1편(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 120만원), 노력상 1편(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 50만원)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논문은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향후 태권도원 운영 및 사업 방향 모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으로, 재단은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통해 향후 태권도 발전방향 모색 및 연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논개정신 선양사업 심포지엄 개최

의암주논개 탄신 제443주년을 기념해 논개정신 선양사업 심포지엄이 최근 타코마정수리조트에서 1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인협회 장수지부 한병대 지부장의 진행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논개따라 삼백리, 그 혼을 만나다'라는 부제로 3명의 발표자가 기초발표와 주제발표를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중우 전주문화원장은 '1593년의 논개, 2017년의 논개'로 기초발표를 하고, 김중수 군산대 교수는 '최경희와 논개, 그리고 장수', 강동욱 경남도문화재단 전문위원은 '진주와 장수, 논개 선양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 조용호 의암주논개선양회

감사, 김권수 경남도민신문 사장 2명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늘날 상황에 맞는 다양한 논개정신 선양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며, 의암주논개기념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기생 역할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견해도 나왔다.

앞으로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자라는 의견들로 논개선양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장은 "앞으로도 장수군은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